전법 일기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법·포교 내겐 '바라밀 수행' 같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연되어 찾아오고 머물렀다 떠나갑니다. 호기심만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에는 상당수 인연들이 변화의 시기에 '재충전'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비우고 싶어서, '마음'이란 것이 궁금해서,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저 또한 대학생 시절, 템플스테이에 갔다가 인연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찾아가보았었기에, 지금 국제선센터에 찾아오는 인연들 또한 1박2일 또는 당일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마음을 쉬고 에너지를 채워가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삶을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갈 실마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롯한 수행과 공부, 기도에 전념하는 사찰에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도심 속에서 함께 하는 일은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가자는 수행할 권리와, 아는 만큼의 법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법을 나누는 스님들의 활동을 '회향'이라고 말하지만, '회향'은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외부활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는 보살의 '바라밀 수행'이 있습니다. 바라밀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이들도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고 인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스스로를 닦아나가는 수행입니다. 바라밀의 특성은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근본으로 삼기에 산란심으로 타인을 돕는 일은 세속의 행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저는 현재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라는 도심 속 현장에 처해봄으로써 제 수행의 힘을 점검하고 수행의 목적인 서원을 보다 굳건히 세워가며 외부로 향하는 마음과 차별상의 근저를 바로보고자 소임과 수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찰과 불교에 대해 관심 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스님들의 일상을 궁금해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는 마주하는 인연에 충실하며 내면으로는 한 순간이라도 알아차림과 서원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는 일, 혼자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경전의 암송과 쓰기, 염불과 주력, 참선, 발원문 쓰기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차별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그 자리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비심(悲心)과 자심(慈心)으로 채워가는 일, 이와 같이 바라밀행을 지어가는 것이 현재 저의 일상이자 수행입니다.

템플스테이 활동을 하기 전, 뜻이 같은 스님들과 함께 '움직이는사찰(mv.temple)'이라는 포교단체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각자가 처소의 소임을 다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하되 현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나누고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부모·친구·소중한 인연들이었을 모든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진과 스님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⑪ 생명에 대한 단상

다르마의 핵심은 '생명'

늘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감한다는 정서가 애처로웠으나, 이번 겨울은 특별하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아주 유난스럽다. 이 별스런 정서는 석존에 대한 마음조차 흔든다. 석존 그분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르마의 핵심은 생명이다. 진즉에 나는 생명이란 삶의 명령, 즉 살아감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단지 이 한 송이 꽃이 어디에 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을까?

그 꽃이 떨어지는 곳을 알 수 있다면, 뿌리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잎을 따거나 가지를 찾으려 하지 말라.

(只如此一株花 向什麼處着 若知落處便能直截根源 其或未然 切忌摘葉尋枝, H76, 213a2-4)

새로운 그러나 새로울 것도 없는 붓다의 면목은 이러하다. 감은 듯 뜬 듯한 눈길을 하고 얼굴에는 금빛의 평안한 미소가 감돈다. 결가부좌로 견고하게 앉아 있다. 절집 법당에서 마주치는 불상의 특징이다. 붓다의 저 오래된 침묵은 묵언으로 알려진다. 침묵의 언어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서두름이 없다.

떠나는 자의 발길에 아쉬움도 없다. 또한 다가서는 그 누구도 막아서지 아니한다. 양다리를 꽈배기 틀어 미세한 움직임조차 막는 결가부좌의 앉음새는 우주가 무너진다 해도 요동이 없다.

묵언과 결가부좌, 그리고 비밀스런 미소는 천사의 날개조차 굳어버리게 할 듯한 기세다.

그러므로 절집에서는 흐르던 강물조차 멈추기에 번뇌가 쉬는 법이다. 하늘의 구름조차 마음 내려 놓고 쉬는 것이다. 밤 하늘의 별들조차 깨어나지 않으려 박제된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구나 꿈꾸는 듯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잠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절집선 강물도 멈추기에 번뇌도 쉰다
생명이 '본체'라면 테크놀로지는 '삶'
잎 따거나 가지 찾지 말아야 할 이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랑은 결코 꽃피지 않을 것이다. 오직 대상도 없이 인식 자체만 홀로 깨어있다. 적막과 고독의 불꽃이다. 그래서 숱한 사연들이 드나들어도 붓다의 가느다란 실눈은 단 한 번도 떠지지 않았다. 붓다의 뒤편으로는 후불탱화의 기묘한 평면성의 공간만 나부끼고 있다.

그러니 그대 지금 등 뒤쪽이 가려워도 돌아보지 말라. 이때까지 끌고 온 삶의 무게가 흐트러지면 중생인 그대의 정체성이 사그라진다. 그저 그대의 등 뒤로 무한한 하늘이 펼쳐져 있음을 믿으라. 이것이 시방 그대와 나 사이의 사랑법이라고 붓다는 말없는 말을 건네고 있다. 누군가 천연덕스럽게 〈사랑법〉을 노래하고 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중략〉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생명이 본체라면 테크놀로지는 삶과 살아감이라는 본체에 대한 기교들이라는 점에서 체와 용의 관계로 풀어진다. 감히 잎을 따거나 가지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불교는 항상 민중과 함께 했다

시계를 되돌려보자.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신군부의 압박에도 6월 3일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이는 종교계 중앙 교단 책임자로서 첫 광주 방문이었다.

5개월 후 한국불교 사상 최악의 법난인 '10·27법난'이 발발했고 월주 스님은 고초를 겪은 뒤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에서 '권력이 내민 손을 잡았다면 법난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수차례 자문했지만 자신의 답은 '아니다'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행을 후회하지 않음을 이 같이 밝혔다. "1980년 외로운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불교, 나아가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민과 국회의원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결국 국회 의결로 155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불교시민단체와 동국대 재학생들은 일제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주요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성명을 발표했다. 불심(佛心)도 민심(民心)도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대통령을 경책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무맹랑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초발심자경문〉에서는 '삿된 말을 즐겨 들으면 성현이 바르게 말한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고 했다. 충암고, 육사 등 온갖 인맥의 장벽으로 갇힌 대통령에게 현재 민중의 경책은 들리지 않는다. 민심을 바로 보지 않는 자, 민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024년 겨울, 다시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질곡의 한국 현대사에 불교는 항상 '중생 곁'을 지켰다. 서슬 퍼런 독재 시대에도, 세월호 참사에도, 박근혜 퇴진 시위 때에도. 지금의 불교계도 누구의 '곁'을 지켜야 할지는 명백하다. 불교는 항상 '중생 곁'에 있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